

호서대학교와 상호 연구 협력 협약 조인



연구소는 지난 6월 17일, 호서대학교 교무회의실에서 이창규 이사장과 강석규 호서대 총장 등 양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호 연구협력 협약에 조인했다. 앞으로 연구소와 호서대학교는 조인한 협약에 따라 화재안전기술의 공동연구,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연구인력의 상호교류 및 기술정보의 상호 교환을 하기로 했다.

이날 양기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창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연구소와 방재분야의 독보적인 위상을 지닌 호서대학교간에 이루어지는 학문과 연구의 두터운 협조관계는 앞으로 국내 화재예방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하나의 귀중한 실험”이라고 전제하고, “이제 시작에 불과한 양기관의 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공인화재폭발조사관 (CFEI) 자격 취득

방재설비부의 이두형 선임연구원과 김기옥 연구원이 미국 공인화재 폭발조사관(CFEI) 자격을 취

득하였다.

이번 자격취득은 미국 화재조사관협회의 화재조사연수원에서 실시한 약 2년간의 통신교육을 받고 실무수습 과정을 거쳐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후 지난 7월 5일 동 협회 주관으로 치뤄져 얻어진 자격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대춘 소장, 소방안전기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정대춘 소장이 소방시설의 공사, 설계, 감리의 하자여부 및 기술기준의 타당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기술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소방안전기술위원은 내무부에서 15개 시도 소방공무원, 학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서 추천한 소방 관련전문가 46명 중 9명을 위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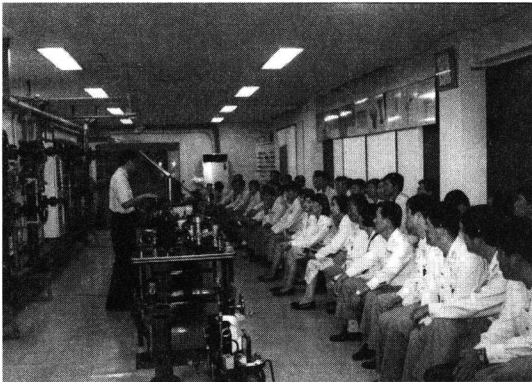
안전전문기관협의회 실무자 회의



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 실무자 회의가 지난 7월 18일 연구소에서 21개 기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동 협의회는 각종 안전을 전문

으로 하는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되며, 안전에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상호 의견 및 정보교환 등을 하는 모임으로써 우리 회사에서는 위험관리정보센터 정창기 차장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소방학교 소방장반 견학



지난 9월 5일, 서울소방학교 소방장반 50여명과 24일에는 한국주택은행 방화담당자 45여명이 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소 안내 슬라이드 시청, 교육실습설비인 소방시설 작동과정 및 시험·연구시설들을 견학하였다.

특히, 주택은행은 소화기 시험 실습교육을 요청하는 등 자회사 담당자들에 대한 방재교육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성도 실장, 매경안전경영 수준평가요원 위촉

연구소의 이성도 실장(개발운영실)은 노동부로부터 종합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매경안전환경연구원으로부터 안전경영수준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8월 14일, 1일간 진단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서비스업종(호텔, 백화점, 병원 등)의 안전경영지수를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 업무에 적용하여 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를 정착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호서대학교와 공동연구 수행

연구소는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호서대와 “자동차 화재시 열 및 연기농도 측정”의 공동연구와 관련한 화재실험을 천안에 소재하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의 주요내용은 차량화재의 열 및 연기농도의 측정, 차량화재시 대피 및 소화방법 고찰 등으로 방재설비부의 이복영 선임연구원과 안병호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논문은 올 11월 개최될 국제화재심포지움에 호서대 주관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KOLAS 사후관리심사 수검

연구소는 8월 27일 1일간,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KOLAS 사후관리 심사를 받았다. 이번 심사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거 동 원의 품질환경인증과 김 홍 사무관 외 1명이 담당하여 공인시험기관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심사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연구소는 지난 95년 KOLAS 신규지정 및 96년 추가지정 이후 처음으로 수검하였다.

이날 심사관의 심사결과 내용으로는 직원에 대한 품질메뉴얼 교육실시, 시험담당자 자격요건 관리 강화 및 검교정 관리 철저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인시험기관 지정이후 업무수행 상태는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국 메릴랜드대학 연수

연구소의 김진국 과장(방재설비부)과 임홍순 과장대우(방화구조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4주간 미국 메릴랜드 대학 연수를 다녀왔다. 금번 연구소의 해외연수는 선진방재기술 습득 및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한 시험 연구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메릴랜드대학에서 화재역할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의 교육을 받았으며, UL, NIST 등 방재관련 기관도 방문하였다.

교보실업 방재기술실무교육 수강



연구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교보실업(대표이사 이영희) 직원 40여명에 대한 방재기술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9월 1일 이른 시간에 개최한 입소식에는 동사 이영희 사장(61)이 연구소를 방문하여 참석하였으며, 교육장에도 직접 참관하는 등 동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화재안전 및 방재기술 교육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정대춘 소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다양한 시험연구 및 교육시설들을 안내를 받아 견학하였다.

한편 교보실업은 금년 4회의 방재기술교육이 계획되어 2회(80명)를 실시하였고, 금번 교육을 포함하여 특별교육 2회(76명)를 추가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4~5회의 교육을 더 실시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재특종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협조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보험개발원이 주최하

는 화재특종보험 실무 세미나가 연구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손해보험회사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하여 화재특종보험의 표준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한 주제발표 등 바쁜 일정을 마친 후 연구소 안내 슬라이드 시청 및 시험연구시설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풍전기안전공사 FILK 인증계약 체결

연구소는 지난 6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2개월간, 수용가의 전기설비 이상상태를 원격중앙감시소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청풍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중앙감시시스템 성능평가에 대한 용역 완료와 동시에 성능평가 결과 제품성능이 우수하여 FILK 인증을 유도, 22일 인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소방용품으로 국한되었던 FILK 인증이 앞으로 안전관련 제품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전남지방 중소기업청에 업무 협조

연구소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광주, 전남지방 중소기업청의 요청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정밀진단을 지원하였다.

이번 정밀진단은 WTO 시장경제개방에 따른 국내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마련코자 연구개발능력 제조공장의 자동화 정도 및 국제경쟁력을 갖는 제품의 선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업체로는 국내에서 연구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동방전자(주), 신화전자(주) 및 금성방재공업(주)으로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방재설비부의 이복영 선임연구원이 업무협조를 담당하였다. (FILK)